

예비 귀어인, 전남 어촌서 한달 살기

사이버 귀어 스톨엑스포 참여 25명
전남 어촌계 3곳서 내달 1일까지
양식어업 등 현장체험에 귀어 교육

전남도가 오는 12월 1일까지 앞으로 한 달간 해남 어촌, 진도 신기, 영광 구수-대신 등 3개 어촌계에서 예비 귀어인 25명 대상으로 '도시민 전남 어민 되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도시민 전남어민 되다' 프로그램은 전남도, 전남귀어귀촌지원센터, 수협중앙회전남지역본부가 함께 진행한다. 참여자는 지난달 온택트 방식으로 진행된 제3회 사이버 귀어 스톨엑스포에서 전남 어촌으로 예비 귀어 의사를 밝힌 도시민들이다.

이들은 서울, 경기, 대전, 광주 등에서 주로 회사원, 도소매업, 요식업 등에 종사한 사람들이다. 3개 어촌계에서는 숙박시설을 제공한다. 예비 귀어인은 종묘 생산 현장, 워킹장 경매, 어선 어업, 양식어업 등 현장체험 교육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또 이미 귀어해서 전남 어촌에서 살고 있는 우수귀어인들로부터 생생한 경험담을 듣고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진도 신기 어촌계를 찾은 김모(54·충북)씨는 "전남에서 해상 양식 교육을 받으면서 사이버 전남 귀어스톨엑스포를 통해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됐다"며 "막막하지만 한 귀어를 실제적이



김준성 영광군수가 9일 오후 영광 구수-대신어촌계에서 '도시민 전남 어민 되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귀어 희망 도시민 10명과 상담하고 있다. 김 군수는 이날 귀어 도시민들에 대한 군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전남귀어귀촌지원센터 제공>

며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조언을 받고 생활해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예비 귀어인 중에는 2살 아이를 둔 30대 부부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 부부는 전남도, 전남귀어귀촌지원센터, 사군의 각종 지원책, 전남 어촌의 높은 가능성, 양식어업에 대한 자신감 등을 전남 귀어의 이유로 꼽았다.

윤영주 전남도 해양환경과장은 "귀어해서 살

아가야 할 어촌에서 직접 한 달간 경험한다는 것은 도시민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며 "실제로 과거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도시민들이 해당 어촌으로 귀어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민이 전남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방비 지원 늘리겠다”

김영록지사, 수협조합장 간담회
“해상풍력, 어업인 피해 없이 추진”

김영록 전남지사가 2021년부터 어선어업인들에게 안전용품 보급하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방비 지원한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수산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도 대출 실행 시 자동적용되도록 하는 등 어업인들의 입장에서 시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어장 축소 등 어업인들의 피해 없이 이익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사·군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 6일 전남지역 수협조합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해양수산분야 현안사항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가진 간담회에는 김석환 전남수협조합장협의회장을 비롯 20개 조합장과 이준서 수협중앙회 전남본부장 등 36명이 참석했다.

수협조합장협의회는 이날 전남 수산 인제양성

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전남도에 장학금 10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코로나19 극복 성금 기부와 착한임대료 감면 운동, 집중호우-태풍 피해극복 물품 지원 및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적극 동참해준 어업인과 수협조합장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수협조합장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소비 감소로 출하량과 가격이 급락했으나, 드라이브스루 판매와 대형매장 입점 등 다양한 판촉활동을 펼친 결과 출하량과 가격이 회복 중이다”며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이와 함께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선어업 안전용품 보급 지원과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지방비 상향 조정, 어선어업 유튜브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으며, “해상풍력 사업에 있어 어업인들의 수용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아울러 전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도시락으로 오찬을 하면서 해양수산정책에 대한 참여와 협력방안을 논의한 자리로 진행돼 어업인과 공감하며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
황칠나무 ‘항암 성분’ 추출 기술
‘황칠코리아’에 기술 이전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가 최근 황칠나무에 포함된 항암효과가 뛰어난 베틀린 성분을 추출할 수 있는 특허기술을 (주)황칠코리아에 기술이전했다.

이 특허에는 분획추출된 황칠나무의 추출물에 담긴 베틀린 성분이 차가버섯의 1.5배나 함유돼 있음을 최초 발견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베틀린(Betulin)은 차가버섯의 주요성분으로 항암 및 항산화, 기초 면역력 증진 등의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분획추출은 혼합물로부터 물리화학적 특성이 다른 물질을 분리해 추출하는 방법이다.

황칠나무를 분획추출하면 열수추출 대비 총 폴리페놀이 4배 증가되며, 신경안정과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될 안식향 향기성분도 얻을 수 있어 이번 특허 이전이 황칠 가공산업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이전제인 농업회사법인 (주)황칠코리아는 강진군에 소재한 황칠제품 전문 제조·판매 기업으로, 전남지역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업체다. 최근 대기업과 연계를 통해 속취 해소제 개발에 참여하는 등 상당한 매출 실적을 올리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지역 연구·개발 정책발굴·발전 방향 논의

전남도 제3차 ‘도프포럼’

전남도는 지난 6일 연구개발 성과의 지역 확산을 위한 ‘2020년 제3차 도프(DOP, Diffusion Of the Province)포럼’을 갖고 지역 연구개발(R&D) 분야의 정책발굴 등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도프포럼은 과기정통부 지원으로 지역 R&D 밀착형 정책발굴 및 수립을 위해 민간 산학연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전라남도를 대상으로 지역의 R&D성과 확산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날 전남도청 정약용실에서 열린 포럼에는 윤병태 전남도 정부부지사, 나경환 산업통상자원부 R&D 전략기획단장 등 전라남도 관계자 및 포럼 위원 20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한 위원회 주제발표와 토의순서로 진행됐으며, 최근 산업동향을 비롯 연구개발성과와 전남 미래 산업의 연계방향, 향후 신규사업으로 발전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자로는 포럼 위원인 김평중 한국석유화학협회 본부장과 김현태 경상대 애그로시스템공학부 교수가 나섰다.

김평중 본부장은 ‘Post 석유화학산업의 미래 전략’이라는 주제로 고기능·친환경 화학소재, 이차·연료전지, 스마트 플랜트 등 고부가 소재 중심의 성장전략을 제시하고, 한국판 뉴딜과 전남의 미래 성장 산업의 연계협력 방안을 강조했다. 김현태 교수는 ‘스마트팜과 지역농산업 발전’에 대한 주제로 농업이 농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AI, 빅데이터, 로봇 등 첨단기술을 접목시킬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의 참석자들은 그동안 R&D는 국가가 주도하고 수월성 위주로 진행돼 지역간 과학기술 혁신역량 및 연구개발 역량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지역균형 뉴딜 사업의 안정적 지원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윤병태 전남도 정부부지사는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중시한 행정부의 국정기조에 발맞춰 R&D 분야도 지역 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주도의 혁신성장이 필요하다”며 “도프포럼이 이를 위한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성과 확산의 마중물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코로나 타격 관광위기 극복 아이디어 봇물

전남관광협의체 월례회

전남도는 최근 민관 관광유관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한 ‘제3회 전남관광협의체 월례회’를 개최하고 관광업계 코로나19 극복방안 및 미래 전남 관광의 방향성 등을 집중 토의했다.

〈사진〉 전남관광협의체는 전남도 관광과와 시군, 관광공사, 관광재단, 관광협회, 여행업계, 호텔업계, 해설사협회, 관련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 범 도차원의 추진체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9월 구성돼 매월 1회 월례회를 개최 중이다.

지난 5일 세 번째 회의에서는 하반기 관광정책 동향과 주요 업무추진계획 등 정보와 함께 지난 제 2회 월례회에서 제안된 관광시책들에 대한 검토결과가 공유됐다. 이어 지역관광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자유토의를 통해 관광특

세 전략을 모색한 시간을 가졌다.

제안된 주요 방안으로는 무안공항 면세점 확대를 통한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함께 주제·테마가 있는 바다여행패키지 마련 등 섬·바다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건의가 잇따랐다. 또 축제일정·숙박시설 할인정보 등을 통합 제공할 전남스마트관광플랫폼 구축을 비롯 지역기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남 관광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등 창의적이며 현실적인 의견들이 제시됐다. 특히 관광에 관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설 관광포럼을 창설하자는 의견이 눈길을 끌었다.

이광동 전남도 관광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월례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며 “회의에서 제시된 대안들을 시책에 적극 반영해 관광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